

한 만 영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 색의 확장에 의한 생명이미지 연구

- 본인 작품 중심으로 -

2011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양화과

최 자 윤

# 색의 확장에 의한 생명이미지 연구

- 본인 작품 중심으로 -

한 만 영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양화과

최 자 윤

# 인 준 서

최자윤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논 문 개 요

본 논문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본인의 작업에서 나타나는 꽃의 여러  
방면에서의 조형적 이미지를 기초로 하여 표현한 생명 의미의 결정체인 “꽃”  
이미지 연구이다. 작품의 소재인 꽃은 생명의 다른 이름이고 생명을 대변해 주  
는 이미지이기도 하며 색채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삶의 일부이기도 하다.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범람하는 많은 소재들 가운데 항상 그럴 소재를 찾는 다는  
것이 가장 어려운 과제였다. 단지 내가 좋아서 그린다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없었고 소재의 선택에 관해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였다. 그러다 여행 중 만나  
게 된 들 꽃 한 송이는 나의 어려운 과제를 단번에 해결해주는 중요한 소재로  
다가왔고, 꽃을 통해 작품을 연구하면서 우리의 생활 근처에 자리 잡고 있는  
사소하게 느낄 수 있는 존재가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예술적 소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많은 미술가들은 미술의 역사에서 아름다운 색채를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가  
에 대한 문제를 항상 고민하고 실험하며 아름다운 작품으로 그 결과를 남겨  
놓는다. 꽃은 우리가 물감으로 표현 할 수 없는 많은 색채를 가지고 있으며  
한 송이의 꽃에서도 수없이 많은 색을 나타낸다. 이러한 꽃이라는 소재는 색  
과 연관되어 작업하는 본인에게 있어 가장 적합한 소재임을 느끼며 이번 연구  
에 임한다.

자연은 늘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그 내부에는 생성과 소멸이라는 창조의  
질서가 내제되어 있다. 특히 꽃은 이러한 양면적 의미를 명확히 가지고 있으  
며 꽃은 오랜 세월 감정을 표현하거나, 경조사 등의 소식을 전해야 될 때 중  
요한 역할을 해왔고 이런 안팎의 양면성을 가진 묘한 질서 속에서 영겁의 세  
월 동안, 짧은 찰나 사라지는 꽃을 좀 더 오래 붙잡아 놓기 위해 예술가들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자신의 작업 속에 가뒀 두려고 한다.

본 연구는 미적 대상으로서의 꽃의 형태를 단순히 재현해 내는 것이 아니라 숨겨진 내면의 모습을 찾아내기 위해 꽃의 형태 중 특정 부분을 강조하거나 생략, 확대하는 방법으로 이미지를 해체해 내면의 감성을 색채를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실제 하는 꽃과는 또 다른 새로운 생명력으로 재현되어 관람자의 직업군이나 내면, 성격 등에 따라 다른 이미지로 받아 들여 질 수 있게 작업에 임하였다. 또한 꽃의 외형적 특징인 곡선이 그 형태가 동작, 팽창, 수축, 또는 반복되는 과정들을 통해 리듬이라는 음악적 요소까지 부가시켜 주게 된다. 빛이라는 것을 통해 우리가 시각적으로 인지되어 지는 대상물 본연의 색에 집착하기 보다는 본 연구자의 감성으로 인지하는 색채로 화면을 가득 채우는 "All Over Painting" 기법에서 시작하여 명암법을 무시하고 색면과 여백을 이용한 작업이 주를 이룬다. 대상물을 카메라로 접사하여 촬영한 다음, 크로핑 기법을 통해 연구자에게 필요한 이미지를 재생산한 후 캔버스에 유화 물감을 이용하여 표현하였다.

꽃이라는 소재를 응용하여 그 구조를 파악하고 아름답지만 많은 이들이 보지 못한 꽃의 새로운 모습을 찾아내고자 하였으며 꽃의 형상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자연의 생명력을 가시화 하고 자연 이미지에 투영된 무의식적인 상상을 이끌어 내도록 표현 해 보고자 하였다.

본 논문 1장에서는 작업 형성이 되는 자연과 예술의 관계에 대해 고찰해 보고, 인간이 지각하는 꽃의 의미와 상징성을 이론을 통해서 알아보며, 작업에 활용되어지는 전면회화와 크로핑 기법에 대하여 서술해 본다. 2장에서는 본인의 감성에 의해 지각된 꽃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확대와 강조, 생략된 이미지를 통해 본인의 작품 속에서 시각적으로 필요한 조형언어인 색채와 형태에 대해 알아보며 색면과 관계된 미술 사소와 작가에 대해 알아본다. 마

지막으로 제 3장에서는 본인의 작업에 영향을 끼친 작가들을 분석해 봄으로서 본인 작품의 문제점과 향후 작업에 대한 방향성을 모색해 보는데 도움을 얻고자 한다.

본 논문을 통해 앞으로의 새로운 작업에 진보적인 설정을 도모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보다 성숙하고 발전된 창작영역으로 확장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목 차

## 논문 개요

I. 서론 .....	1
II. 본론 .....	5
1. 이론적 배경 .....	5
1) 자연과 예술의 관계 .....	5
2) 꽃의 의미와 상징성 .....	7
3) All over painting과 크로핑 기법 .....	10
2. 생명 이미지 표현 방식 .....	11
1) 미적 대상으로서의 꽃의 이미지 .....	11
2) 색채에 의한 꽃 이미지 .....	13
3) 확대된 꽃의 이미지 .....	16
3. 작가 분석 .....	18
1) 조지아 오키프 .....	18
2) 마크 로스코 .....	21
4. 본인작품분석 .....	23
III. 결론 .....	39

참 고 도 판

참 고 문 헌

ABSTRACT

## 작 품 목 록

[작품1] Rose, oil on canvas, 162.2x112.1cm, 2009

[작품2] RoseⅡ, oil on canvas, 162.2x112.1cm, 2009

[작품3] Spring, oil on canvas, 150x150cm, 2009

[작품4] Summer, oil on canvas, 150x150cm, 2009

[작품5] Autumn, oil on canvas, 150x150cm, 2009

[작품6] Winter, oil on canvas, 150x150cm, 2009

[작품7] Wild FlowerⅠ, oil on canvas, 116.8x80.3cm, 2010

[작품8] Wild FlowerⅡ, oil on canvas, 116.8x80.3cm, 2010

[작품9] Wild FlowerⅢ, oil on canvas, 116.8x80.3cm, 2010

[작품10] Wild FlowerⅣ, oil on canvas, 116.8x80.3cm, 2010

## 참 고 도 판

- [도판 1] Georgia O'keefe, Red Canna, oil on canvas, 91.4 X 76.0cm, 1923
- [도판 2] Georgia O'keefe ,Blue and Green Music, oil on canvas, 58.4 X 48.3cm, 1919
- [도판 3] Georgia O'keefe, Gray Line With Black, Blue and Yellow, oil on canvas, 48 X 30in 1923
- [도판 4] Georgia O'keefe, Black Iris III, oil on canvas, 1926
- [도판 5] Georgia O'keefe ,Oriental Poppies, oil on canvas, 76.2 X 101cm, 1928
- [도판 6] Georgia O'keefe, Abstraction White Rose II, oil on canvas, 1927
- [도판 7] Georgia O'keefe, Purple Petunias, oil on canvas, 1925
- [도판 8] Mark Rothko, Orenge & Yellow, oil on canvas, 1956
- [도판 9] Mark Rothko, Untitle, acrylic on canvas, 152.4x145.1cm, 1970
- [도판 10] Mark Rothko, Untitle, oil on canvas, 247.3x207.8cm,1957
- [도판 11] Barnett Newman, 누가 빨강, 노랑, 파랑을 두려워워 하라?  
1969~1970
- [도판 12] Helen Frankenthaler, Canyon, acrylic on canvas, 112x132cm
- [도판 13] Morris Louis, 델타 감마, 1960

# I. 서론

현대 사회는 모든 분야에서 많은 변화와 획기적인 개혁이 이루어졌다. 과학의 발달, 기존질서에 대한 부정 등으로 전통적인 삶에서 탈피하여 무언가 새로움을 찾아 새로운 것을 발견하기 위해 창의적인 도전을 한다. 19세기 말부터 시작한 새로운 미술운동 또한 미술계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기존의 모든 미술 방법을 부정하고 빛과 색채를 화폭에 담아야 한다는 인상주의 미술에서 시작한 이러한 조짐은 형태를 단순화하고 생략하여 기하형태로 표현하는 것을 추구하는 입체주의<sup>1)</sup>(Cubism) 미술을 탄생 시킨다. 이후 나타나는 현대 미술의 다양한 사조에서는 기하형태의 추구하고 일상생활에서의 물건들을 확대, 축소 등으로 적극적으로 작품으로 표현하는 추상미술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인다.

인간생활은 색채와 함께 생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생활과 색채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도처에서 이용된다. 미술 작품뿐만이 아니라 의생활에서 패션 칼라, 식생활에서 인공착색 식품, 주생활에서 인테리어에 응용되는 색채 등이 우리의 주변환경을 둘러싸고 있다. 그러므로 색채는 사람을 슬프게 또는 즐겁게 하는 요소로 인간의 감정과 정서에 작용되며, 생활조형으로써 그 시대의 사회생활을 반영해준다. 특히 고대부터 중세를 거치는 동안 색채는 주로 상징성에 의미를 주고 사용되어 왔으나 현재는 감각적인 조화와 의미에서 색채를 논하게 된다.<sup>2)</sup>

꽃은 우리가 물감으로 표현 할 수 없는 많은 색채를 가지고 있다. 한 송이

---

1) 20세기 초 회화를 비롯해 건축, 조각, 공예 등 국제적으로 퍼져 전파된 미술 운동.

2) 박옥련, 「색채이론과 활용」, 형설출판사 p.17

의 꽃에도 수없이 많은 색이 나타난다. 이러한 많은 색채를 지니고 있는 꽃이라는 소재를 채택하여, 꽃은 생명의 다른 이름이고 색채를 대변해주는 이미지가 우리 생활의 일부임을 느끼며 본 연구에 임한다.

아리스토텔레스<sup>3)</sup>는 ‘자연학(Physica)에서 “예술은 자연의 과정과 그 방법을 모방하며 일반적으로 예술은 어떤 면에서는 자연이 끝맺지 못한 것을 완성하며 어떤 면에서는 자연을 모방한다.” 라는 중요한 지적을 하였다. 자연은 오래 전부터 인간과 필연적인 삶의 관계를 이루고 있으며 인간의 끊임없는 관찰과 표현의 대상이 되어 왔다. 시대에 따라 미의식은 변화 하지만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대상이 있다. 바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 사회에서 가장 대표적인 미의 상징으로 만인에게 아름다움의 대상인 꽃이 그것이다. 꽃은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존재로 꽃이 지니고 있는 독특한 형상과 조화로운 색채는 인간에게 정신적인 위안과 안정을 주고 미적 욕구를 만족 시켜주는 대상이 되었으며, 반복되는 생성과 소멸이라는 순환구조를 통하여 생명의 신비로움을 보여 주고 있다. 많은 예술가에게 꽃은 끊임없는 관심의 대상이 되어 창작 활동의 소재가 되었고, 꽃의 형상을 바탕으로 예술적 감각을 통해 내면세계를 표출하고자 한다. 자연의 일부인 꽃을 통해 양면적 의미를 느끼고, 약한 것과 강한 것, 생성과 소멸, 시작과 완성의 음양의 묘한 조화 속에서 균형을 맞추고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인은 오랜 기간 동안 꽃의 형상에서 미적 이미지를 공감하며, 그것을 통해 인간의 내면세계를 보다 새롭게 표현해보고자 각각의 꽃의 특성을 숙고하며, 내면에 잠재해 있던 상상력을 동원해 주관적 표현을 시도해 왔다. 전면회화로 표현한 작품은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형태는 거의 기하학적 조직의 추상적 구성으로 전환시켰지만 결론적으로는 추상과 객관적 실재를 조화롭게 결합

---

3) 아리스토텔레스. (Aristoteles, BC 384~322).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하고자 한다. 그 이후 여백이 도입되기 시작함으로써 입체감은 정교하게 표현되었지만 꽃잎이나 그 외의 요소들을 여백과 색면으로 단순화 되어 그 본질로 소급된다. 우리가 사물을 볼 때 첫 단계에서 인지하는 정확한 윤곽선, 크기, 색의 음영 등 전체적인 것을 보기 보다는 카메라의 렌즈로 접사한 듯 즉물 사진기법을 활용하여 일부분을 확대하거나 강조, 생략 시켜 다른 느낌의 이미지로 인지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꽃의 구성 요소들인 꽃잎과 꽃술 그 자체가 지니고 있는 유기적인 곡선들의 반복되고 겹쳐지는 이미지를 통해 리듬감을 표현하고자 한다. 겉으로 보여 지는 꽃잎과 빛깔의 화려함, 향기가 많이 난다고 해서 아름다운 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보는 이로 하여금 좋은 이미지로 다가오고 마음속으로 더 좋은 뜻으로 다시 자리 매김하는 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을 지닌 꽃 일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자연 속의 생명체인 꽃의 아름다움을 생략과 강조, 확대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환상적이고 풍요로운 이미지로 조형화 시켜 캔버스에 색채의 확장을 통해 표현 해 봄으로써 우리 삶의 유희를 공유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본고 1장에서는 작업 형성의 배경이 되는 자연과 예술의 관계에 대해 고찰해 보고, 인간이 지각하는 꽃의 의미와 상징성을 이론을 통해서 알아보며, 작품의 많은 부분에 활용되어진 전면회화와 크로핑 기법에 대해 서술해 본다. 2장에서는 본인의 감성에 의해 지각된 꽃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확대, 강조, 생략 된 이미지를 통해 본인의 작품 속에서 시각적으로 필요한 조형언어인 색채와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고 색면과 관계된 미술사조와 관련된 작가들에 대해 알아 본다. 3장에서는 꽃을 대상으로 자연의 강한 생명력을 환상적인 색채와 확대를 통해 에너지로 충만한 화면을 구성하여 시들어 사라지는 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 숨쉬는 꽃을 그리는 작가 조지아 오키프와 사람들의 심상을 자극하는 뛰어난 색면 추상을 표현한 작가 마크 로스코에 대해 연구,

비교 해 봄으로써 본인 작품의 문제점과 향후 작업에 대한 방향성을 모색 해 보는데 도움을 얻고자 한다.

## II. 본 론

꽃은 표면적으로 유기적인 꽃잎, 꽃술, 꽃받침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 그러나 꽃은 그 보다는 더 복잡한 존재이다.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이런 방어에 형태가 기능을 따르게 하는 하나의 사례가 되지만 때로는 다른 이유들 때문에 꽃의 여러 부분이 융합 되면서 그 결과 어떤 형태를 띠게 되는 순전한 우연적인 경우도 있다.<sup>4)</sup>

꽃의 외형적인 큰 형태도 아름답지만 숨어 있는 구조 또한 아름답다. 겉으로는 너무 작아 점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확대해서 보면 감각적인 형태의 미에 빠져 든다.

### 1. 이론적 배경

#### 1) 자연과 예술

인간의 삶의 터전인 자연은 인간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연과 친근해졌고,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으며, 따라서 인간은 미의식 내지 예술 활동도 이 주어진 자연 환경을 떠나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자연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환경의 세계와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세계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 이러한 자연에 대해 인간은 끊임없이 동경하고 모방하고 표현하려 하였다. ‘자연은 스스로를 생존케 하고

4) 샤먼 엡트 러셀, 「꽃의 유혹」 이제이박스, p 67~68

우리의 정신생활과 생의 표현이었고, 예술가의 노력은 인간적 의미를 가지는 하나의 질서를 창조하는 것이다.’ 이러한 질서를 내재한 가운데 자연은 누구에게나 부여할 수 있는 풍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에 인간은 자연을 인간의 조형의지와 미의식에 따라 여러 가지로 표현해 왔다. 자연의 미는 인간의 예술의욕에 의해 예술적 형식으로 형성화 하는 가운데 예술미를 형성한다. 즉 대자연의 미는 예술미를 낳게 하는 모태인 것이다. 이와 같은 자연의 미를 콜링우드(R.G.Collingwood)는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sup>5)</sup>

첫째로 인간의 본연과는 대조적으로 정의되는 순수한 자연본연의 미와 둘째, 인간의 의지에 따라 자연의 미에 인간의 감정을 첨가하여 생기는 아름다움, 셋째, 일종의 자연미라 할 수 있는 모든 인간 활동이 낳는 인위성을 거부하지 않는 제3의 미로 분류 하였다. 이러한 자연미에 대한 개념은 동, 서양을 사이에 두고 달리하여 왔다. 서양에서는 인간과 신의 개념만을 중시하여 왔을 뿐 자연은 정복 혹은 착취의 대상이었고 그 배경으로서 작용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반해 동양에서는 자연과의 조화, 자연속의 인간에 그 근본을 두었다. 이렇듯 동, 서양이 상반된 자연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에 대한 관심과 열정은 지속적으로 조형의지를 자극하여 왔다. 결국 대자연은 인간의 미의식에 영향을 주며 창조활동의 발판이 되어 시대와 작가에 따른 개성적 미학에 의하여 다각적으로 구현되어 왔던 것이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자연미를 자연에 대해 개개인의 독특한 직관, 지각, 혹은 정서의 상태에 관한 감각을 표현함으로써 자연 이상의 아름다움을 형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연이 아무리 아름답다하여도 그 자체가 예술이 될 수는 없으며 자연이 예술가의 심상을 거쳐 형상화 될 때야 비로소 예술이라 할 수 있다. 예

---

5) R.G Collingwood (1925), 「예술철학개론」, 이일철 (역), 서울, 정음사, 1978, p 94~107

술은 자연의 이상화이며, 예술가의 조형적 형식으로 실제화 될 수 있는 이상의 표현이다. 이렇듯 인간과 자연의 관계, 필연성은 자연이 예술의 소재로 영원하며, 예술의 이해는 자연을 해석하고 자연이 갖는 미와 자연에 대한 인간의 경외심을 표현하는 것으로 우리가 자연에서 보고 느끼는 것보다 더 나은 이상적 미를 경험 할 수 있다. 예술은 넓은 의미로 인간의 내면세계를 거친 또 하나의 자연이라 볼 수 있는데 아름다움을 창조하기 위해 자연과 예술은 떼어 수 없는 관계이며, 인간의 미나 자연의 미가 합쳐질 때 훌륭한 예술적 미가 탄생된다고 할 것이다. 자연과 인간은 꼭 필요한 유기적 관계를 이루며 그 생명체의 근원으로써 끊임없이 필연적 관계 속에 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순환되며 움직임이 계속 된다.

예술가에게 자연을 표현한다는 것은 예술가의 독창성과 감성에서 표출된 의지이며 생명력과 화면의 자율성은 직관과 자유의지의 기초로 실현된다.

그림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실체성과 개성으로 이어지고 표출하는 화면 공간의 세계를 주관적으로 회화의 감성을 표현한다면 그 것은 자연스런 결과물로 비춰 질것이다.

## 2) 꽃의 의미와 상징성

꽃은 아득히 옛날부터 각기 다른 형태와 향기, 색채 모두가 완벽하게 조화된 아름다움의 상징으로 생활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독특한 형태와 조화로운 색채는 인간에게 정신적인 위안과 안정을 주고 미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대상이 되었으며, 반복되는 생성과 소멸이라는 순환 구조를 통하여 생명의 신비로움을 보여주고 있다.

꽃은 꽃잎의 형태와 곡선을 통해 자유로운 형상을 느낄 수 있으며 꽃의 외

형적 특징인 곡선은 그 형태가 동작, 팽창, 수축, 또는 반복되는 성장의 과정들을 통하여 만들어 내는 물리적인 힘의 흔적에서 나타난다. 선과 선의 반복에 의해 리듬이라는 것이 생겨나며, 자연적인 동시에 율동적인 기능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sup>6)</sup>

서양의 경우 꽃에다 꽃말을 붙여 각각 꽃이 지니고 있는 특성을 의인화된 어의로, 장미는 사랑, 해바라기는 기다림, 연꽃은 환생 등의 뜻으로 알려져 왔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매난국죽이라 하여 지조와 절개의 대명사로 비유되어 섬김을 받아왔다. 그러나 오늘날, 자연의 파괴와 과학의 발달로 기계적이고 획일화 되어 가는 도시 환경 속에서 그 의미들은 잊혀져 가고 있다. 이처럼 인간은 꽃에 대하여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연상적으로 표현하려 하였으며 이러한 꽃의 상징은 의미를 갖고 많은 예술가들이 예술의 소재로 즐겨 사용하였다. 서양에서는 꽃의 아름다움을 자연의 온갖 사물의 생명력으로 인식하였으며 동양에서는 외면적 형태보다는 정신적인 면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 예술에서의 상징은 이 세상의 대상물을 통해서 미지의 것을 암시하는 방법을 취하는 표현적 형식이다.

상징은 감성과 감정을 바탕으로 한 개인적 체험에서 설정할 뿐만 아니라 생명의 신비에 쌓인 불가해한 느낌 같은 것을 암시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자연의 실체와 작가 자신의 내적 실체를 의식적으로 재결합시키고자 하는 일이다. 즉, 육체와 정신, 영혼과 대상물과의 새로운 결합을 꾀하고자 하는 일이다.

꽃의 완벽한 조화미와 색채의 아름다움이 인간의 생활과 종교적 감성의 정신적 만족으로 표현되어지고, 도시 문명 속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심상이 반영된 꽃은 자연의 상징으로 승화 되어 인간의 미적인 것에 대한 욕구를 충족

---

6) 이경영저, 「공예통론」, 다른 세상, 서울, 2002, p 100

시키는 새로운 형태로 재창조 되었다.

꽃은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아득히 옛날부터 각기 다른 형태와 향기, 색채 모두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움의 상징으로 우리의 생활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프로이드 (Freud)<sup>7)</sup>는 “상징은 공통된 성질을 가지고 있어 모든 인간에게 공통되며 상징에 관한 지식은 무의식에 속한다. 즉 어떤 것을 무엇으로 상징하는가를 본인은 의식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무의식적으로는 알 수 있다.” 라고 하였다.

심리학자들은 “상징에 흥미를 느끼는 것은 주로 자연의 상징에 관한 것이며 자연의 상징은 마음과 무의식의 내용으로부터 파생된 것이고 근원적인 원형적 심상의 다양한 변화를 보여 준다.” 라고 하였다.

우리가 접하는 수많은 종류의 꽃들은 일반적으로 신선하고 향기가 좋으며 빛깔이 좋은 것을 생명으로 하여 인간의 정서를 윤택하게 하는 활력소 역할을 하며 시각적으로만 미적 요소를 충족시켜 주는 대상이 아닌 희망과 바람 등 내면적, 상징적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다.

꽃은 고대 기하학적 개념으로 원(圓)을 상징하고 15C 르네상스 에서는 종교적 우의(寓意)를 암시하고 자연계의 모든 감성적인 생명을 상징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집트에서는 연꽃을 초기의 생명, 혹은 생명이 최초로 나타나는 형상을 상징하였다. 중세에서는 신비한 ‘중심’ 따라서 심장과 동일시되었고 그리스의 아네모네는 영혼과 연금술의 상징으로 이해되었으며 불교의 연꽃장식을 비롯하여 무교(shamanism)의 연꽃, 민화의 꽃 그림, 심지어 조선시대의 사군자에 이르기까지 종교적인 깨달음의 비유와 관련되어 있다.

이처럼 꽃은 너무나도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인간 생활의

---

7) Freud, Sigmund, 1856.5.6~1939.9.23 , 오스트리아의 신경과 의사, 정신 분석의 창시자

정서를 풍만하게 해 줄 뿐 아니라 예술적 영감과 상징의 한 보고라 할 수 있겠다.

### 3) 전면회화 (All over painting)와 크롭핑(Cropping)

화면에 어떤 중심적인 구도를 설정하지 않고 전체를 균질하게 표현하는 경향의 회화로 화폭의 테두리까지도 그림으로 가득 채우며, 화면 전체를 동일한 방법으로, 같은 강도로 칠한다. 전통적 구성의 기본 바탕이 되는 작품 내에서의 부분과 부분들 간의 관계를 결코 강조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주로 미국의 추상표현주의적 드립 페인팅을 가리킨다. 이러한 기법의 대표적인 작가는 폴록(Jackson Pollock)<sup>8)</sup>으로 그의 작품은 때때로 위 아래가 분명치 않을 뿐만 아니라, 캔버스를 초월하는 확장 가능성을 보여 주기도 한다. 이러한 개념은 외관상 되는대로 만든 것 같은 전면적 처리에서 유발된 것으로 폴록은 종종 캔버스를 방바닥에 누어 놓고 여러 방향에서 작업을 하거나 캔버스 속에 들어가 작업을 하곤 했다. 후에 이 용어는 동일한 요소 혹은 거의 균일한 색의 바탕에서 전면적 디자인을 시도한 몇몇 다른 작가들의 작품에도 적용되었다.<sup>9)</sup>본인 작품 Rose I 과 Rose II에서 All over painting 기법을 활용하였다. 꽃이라는 소재의 일부분을 폴 스트랜드<sup>10)</sup>의 즉물사진기법처럼 적절한 조명 아래서 매우 가깝게 확대하여 사진을 찍은 후, 색채는 섬세하게 조화를 이루는 동시에 최대한의 표현성을 얻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그림의 위 아래가 정해

8) 잭슨 폴록 (Paul Jackson Pollock 1912.1.28~1956.8.11), 미국의 추상 표현주의(액션페인팅)의 대표적인 화가.

9) naver 지식 in

10) 폴 스트랜드, (Paul strand), 미국의 사진 작가, 사진의 기계적 특성에 바탕을 둔 사진 예술의 창조를 주장하며 사진분리와 운동의 앞성을 이뤄냈다. 즉물 사진 장르를 개척하였고, E!한 최하층 사람들의 생활상을 사진에 담으며 사회적 관심을 표출했다.

져 있지 않아 전시자의 전시 방향에 따라 그림의 이미지는 아주 미세하지만  
항시 바뀔 수 있는 요소를 지니고 있다.

크롭트 테크닉 역시 1916 “카메라 워크 (Camara Work)”지의 사진 작가이  
자 291서클의 일원 이던 스트랜드(Paul Stand, 1890~1976)의 <추상, 그릇  
(Abstrastion, Bowl)>이란 작품에서 처음 등장하였다. 대상을 사진기의 렌즈  
로 촬영한 후 본인이 원하는 이미지로 재탄생 시키기 위해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내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것을 Cropping 또는 Trimming이라 한다.

본인의 작업에 필요한 이미지를 만들때 주로 Cropping 기법을 주로 사용하  
였으며, 이 기법을 통해 화면의 전체를 채우거나 일부분의 여백을 허용 할 수  
있는 작품을 표현 할 수 있다.

전면회화에서 여백이 도입하게 된 계기는 화면에 동일한 색상과 강도, 느낌  
으로 표현하다 보니 시선이 일정한 부분에 멈춰짐도 없고, 답답함과 지루함이  
작품에 머물고 있다는 생각에 꽃술 작업을 하면서 하나의 중심에 포커스를 맞  
추고 다른 곳으로의 시각 분산을 막기 위해 여백과 단순화된 색면을 화면에  
구성하게 되었다. 단순화된 꽃잎의 평면적인 색채 표현과 빈 여백은 비어 있  
는 공간이 아니라 정신세계를 반영함과 동시에 무한한 가능성을 내포하여 표  
현하였다.

## 2. 생명 이미지 표현 방식

### 1) 미적 대상으로서의 꽃의 이미지

꽃은 외형적인 형태의 아름다움뿐만이 아니라 꽃의 구조 또한 다른 형태의

미를 보여주고 있다. 꽃은 꽃잎, 꽃받침, 암술, 수술의 네 부분으로 이루어지는 번식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네 부분을 항상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 이상의 암술이나 수술을 가지고 있다. 꽃잎은 매개 동물을 유인하고 내부구조를 보호하며, 꽃받침은 꽃 봉우리와 어린 열매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sup>11)</sup> 이렇게 꽃의 생태적 구조라는 자연의 법칙에 의하여 수정을 하고 아름다움과 생명존속의 상징인 꽃을 피우게 된다. 이렇게 개화된 꽃은 반복되는 생성과 소멸이라는 순환구조를 통하여 생명의 신비로움을 보여주며 이러한 꽃은 많은 예술가에게 창작 활동의 소재가 되었다.

예술가가 생산한 이미지를 자연으로부터 재생산된 하나의 가상적 시각적 생명체라고 한다면, 그 생명력을 포착해내는 것이 예술가의 중요한 의무 중 하나일 것이다. 그 것은 물질적 혹은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만이 아니라, 의식적이거나 혹은 무의식적으로 낳은 구체적 결과물이다. 꽃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리듬, 즉 우리가 지각하지 못하는 내적인 움직임이 있다. 꽃을 소재로 표현하는 예술가들에 의해 꽃의 모양과 색채의 완벽한 조화미가 도시 문명 속에서 삭막해져만 가는 인간들의 정신적 만족이 표현된다. 그것은 생활 속에 활력을 주는 동시에 미적인 것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새로운 형태로 창조된다. 또 그것은 자연과의 새로운 형태의 일치를 원하는 마음, 혹은 아름다운 자연을 내적으로 소유하고자 하는데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

본인이 꽃을 소재로 표현해 온 것은, 꽃에 내재된 생명감 그 자체의 질서와, 외면적 형과 색이 예술적으로 표현 될 수 있는 미적 요소를 갖추고 있으며, 나아가 그 상징적 의미가 자신의 내면세계를 표현하는데 있어 인간의 심성을 대변해주는 소재로서 적합하기 때문이다. 오랜 세월 동안 다양한 예술가에게 표현매체로서 영감을 준 꽃 이미지는 인간의 생애와 함께하는 감성적 생명체

---

11) 강혜순저 「꽃의 제국」 다른 세상, 서울, p 100 2002

로서의 상징물로 최고의 아름다움을 대변하는 것이다.

## 2) 색채에 의한 꽃 이미지

색채란 무한한 조형의 언어인 것처럼 색의 배합이 주는 독특한 매력은 우리의 감각을 이끌어 주는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것이다. 색채는 색으로부터 유추되는 본래의 형태를 말하는데 이와 같은 색채가 주는 감정이나 형태는 어디까지나 원칙적으로, 주관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보편적으로 유추될 수 있는 색의 연상과 형태가 있다.<sup>12)</sup> 색채는 그 자체가 독립적인 세계로서 가치를 가지며 형과 더불어 조형적 표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색채는 인간에게 끊임없이 복잡한 인식작용 및 정서반응을 가지게 되며 그것은 내적 경험을 불러일으킨다. 색채감정은 각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색채에는 흥분을 유발시킬 수 있는 요소의 색과 침착을 유발시킬 수 있는 색이 있다. 흥분을 유발 시키는 색채는 따뜻한 색, 적, 등, 황에 가까운 색상으로 적과 등을 극단의 색으로 보고 있으며, 노란색은 인간에게 흥분과, 불안감을 주며, 이것은 대담하고 끈질기게 감정에 영향을 준다.

침착하게 하는 색으로는 차가운색, 청, 녹색에 가까운 색상으로 청색을 극단적인 색으로 보며, 녹색은 중성적인 색채로 보고 있다. 채도가 낮으면 일반적으로 흥분과 침착성도 줄어들게 된다.<sup>13)</sup>

후기인상주의 화가 반 고흐<sup>14)</sup>가 표현하고자 했던 것은 자연의 단편이 아니라 슬픔, 두려움, 기쁨, 절망 등의 여러 정념이 색으로 물들여진 인간의 깊은

12) 임영방, 「현대미술의 이해」, 서울대 출판부, 1982

13) 김미희 「꽃을 통한 감성적 이미지 연구」성균관 대학교 디자인 대학원 석사 논문, 2004

14) 반 고흐 (Vincent Van Gogh) 1853~1890, 네덜란드 화가, 표현주의 흐름에 강한 영향을 미침.

마음의 세계였다. 그가 그려낸 꽃 ‘해바라기’는 그가 일생동안 누려보지 못한 삶의 풍요를 노랑이라는 상징적인 색채, 꽃이라는 아름다운 생명력을 통해 역설적으로 표현한 가슴 저린 비화인 것이다.

회화에 있어서 색채는 생명이며 발광하는 에너지다. 색채는 작품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는 본질적인 요소며, 조형요소 가운데에서는 가장 회화적인 것으로 인간의 감정을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회화에 있어서 색채는 자연대상을 재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받은 주관적인 감정을 표현하고 혹은 어떤 생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나타내고 전달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수단이 되는 것이다. 즉 회화란 시각예술이기 때문에 제공되는 색들의 구성없이는 이루어 질 수 없다. 색은 여러 가지의 표현미를 가지고 있으며 자발성과 우연성이 강조되는 표현으로 환원되어질 때 독립적인 표현성을 가지게 된다.<sup>15)</sup>요하네스 잇텐 (Johannes Itten 1888~1967)은 “색채의 효과는 비단 시각으로만이 아니라 심리적인 경험과 상징적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으며, 파버 비렌(Faber Birren)<sup>16)</sup>은 “조화와 우아함도 역시 색채의 분별 있는 배열에 의해서 만들어 진다.”라고 색채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본인 또한 이미지의 확대와 강조, 생략을 통한 형태에서 오는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해 색채라는 회화적 언어를 사용하였다.

강렬한 원색 위주의 색을 사용 하여 꽃의 생명력을 느끼게 함과 동시에 현실 속에 존재하는 꽃이 아닌 또 다른 얼굴을 지닌 꽃의 생명체로 나타날 수 있도록 표현 하였다.

본인의 색채 작업에 있어 영향을 끼친 색면 회화( Color-Field Abstract)는 1950~1960년대에 일어난 미국 회화의 한 경향으로 대형화면에 삼차원적인

---

15) 잇텐, 요하네스 「색채의 입문」 지구문화사, 1976, p 11~17

16) 비렌, 파버 「색채의 영향」 시공사, 1996, p 78

깊숙한 공간감을 주는 착시적 효과와 제스처적인 붓질을 피하고 화면 위에 물감을 넓게 펴발라 캔버스 전체를 색채로 뒤덮는다. 형상과 배경의 구별을 없애기 위해 캔버스를 하나의 이차원의 평면으로 다루었으며, 색채로 뒤덮인 화면은 마치 더 큰 장(場)의 일부 같은 느낌을 준다. 이러한 전면 균질적인(all-over) 방식은 이미 인상주의자들, 특히 모네(17)Claude Monet)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그의 <수련> 연작은 중심적인 초점이 결여되었을 뿐 아니라, 부분과 부분의 연관성을 강조하는 전통적인 구성개념을 거부하는 것이었다. 색면회화가 추상표현주의의 한 경향이며 전면균질회화(all over painting)의 방식에 영향을 받았으나, 이들은 폴록(Jackson Pollock)의 액션 페인팅에 반대하고 촉각적인 회화의 물질성을 거부하면서 색채에 대한 관심을 결합하고자 했다. 뉴만(18)(Barnett Newman)과 로스코(Mark Rothko)는 형태를 소수의 단순한 모양을 감축하고 캔버스를 거대하게 확대함으로써 순수한 색채의 표면처럼 시각적이거나 거시적인 특질을 부각시키고자 했으며, 그것에서 명상적이고 정신적인 분위기로 감싸인 고요한 작품을 제작했다. 뉴만과 로스코는 궁극적으로는 순수한 시각에 근거를 둔 미술에 도달하게 되었으며, 색깔 간의 수평적이고 수직적인 분할에 있어 경계를 선으로 처리하여 색면을 연속시키거나 표면에서의 색의 진동에 중점을 두었다.

그들의 단순화된 구성과 과감한 규모에 영향을 받은 프랑켄탈러(19)(Helen Frankenthaler), 놀랜드(20)(Kenneth Noland), 루이스(21)(Morris Louis), 올리

17) 클로드 모네 (Claude Monet, 1840.11.14~1926.12.5), 프랑스의 인상파 화가. 햇빛을 받은 자연의 표정에 따라 밝은 색을 효과적으로 구사하고, 팔레트 위에서 물감을 섞지 않는 인상파 기법의 한 전형을 개척.

18) 바넷 뉴먼 (Barnett Newman, 1905.1.29~1970.7.4), 미국의 색면추상 화가. 캔버스에 단색 화면을 세로로 가로 지르는 'zip's'라고 불리는 수직선은 그의 작품 가장 큰 특징

19) 헬렌 프랑켄탈러 (Helen Frankenthaler, 1928.12.12.~), 미국의 제 2세대 추상표현주의 여성화가

20) 케네스 놀랜드 (Kenneth Noland, 1924.4.10~), 미국 화가, 밀칠이 되어있지 않은 캔버스에 물감을

츠키(Jules Olitski) 등은 캔버스를 아주 단순하게 취급하여 투명하게 스며든 색이 그대로 드러나고 색과 캔버스 천이 일체가 된 작품을 제작했다. '색면'은 데이비스<sup>22)</sup>(Gene Davis)와 폰즈<sup>23)</sup>(Larry Poon)의 보다 시각적인 그림의 출발점이 되었으며, 그 급진적인 단순화와 화면 내의 형태를 캔버스의 장방형 구성에 관련시킨 경향은 미니멀 아트의 기초를 이뤘다.<sup>24)</sup>

현대는 '색채'의 시대라 불릴만하다.<sup>25)</sup>오늘날 세계는 대담한 색채의 사용으로 특징지어 진다 말할 수 있으며, 우리는 색채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색채는 음영에 관계없이 형태를 결정해 주며 색이 갖고 있는 표현적 특징과 그로 인해 생긴 연상과 상징성은 작품에 직접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동시에 대상을 암시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아울러 색채를 통해 우리의 눈을 매혹시킬 수 있으며 기쁨, 만족, 안정, 자극을 전달하고 심리적 효과와 체험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색채는 인간의 마음에 즐거움을 준다.

### 3) 확대된 꽃 이미지

예술작품에 있어서 형상은 단순히 표현 대상의 생긴 모양뿐만이 아니라 예술가의 마음과 감각에 의하여 떠오르는 대상의 모습으로서 주관적인 표현 상태를 말한다. 이를테면 자아와 대상과의 상상력에 의한 일체화, 즉 자아가 대상 속에 들어가 느끼는 감정의 한 형식이다. 예술은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

---

스며 들게한 그림 발표.

21) 모리스 루이스 (Morria Louis, 1912.11.24~1962.9.7), 미국 화가. 추상 표현주의로 출몰하여 1950년대에 색채표현의 가능성 개척.

22) 진 데이비스 (Gene Davis 1920.8.22~1985.4.6), 세로 스트라이프 그림으로 알려진 미국의 추상화가.

23) 래리 폰즈 (Larry Poon 1937~), 일본출신 추상 주의 화가.

24) 월간 미술

25) 윤일주, 「색채의 입문」, 민음사 1974

이므로 예술은 역시 감정을 통해서만 작용할 수 있다.<sup>26)</sup> 감정 이입은 미적 관조에서 마음과 감정이 없는 자연물에 대해서 감정을 이입하여 그것이 감정을 갖는 것으로 만든다. 미적 성질에 대한 적극적이고 참여적인 경험을 통해 가능하면 자연이 감각에 의해 흡수되고 지성에 의해 개념화되고, 상상력에 의해 형성될 때, 완전하고 통합적 행위가 된다. 그 결과 표현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로 가득 찬 이미지가 되는 것이다.

꽃이 피어날 때 봉우리 안에서의 움직임은 피어나려는 의지의 상징이며 개화는 순간에서 만개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낙화 하면서 그것은 열매라는 불멸의 존재를 낳는다. 꽃을 형태적으로 분석해 보면 꽃받침, 꽃잎, 암술, 수술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모든 하나하나의 형태들이 어느 것 하나같은 것이 없고 꽃잎의 선을 보면 유연하고 부드러운 모양이 관능적이기도 하다.

이미지의 형태는 작품으로 표현될 때 작가의 의지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되는데, 대상을 관찰한 후 원래의 형태를 재구성하거나, 사물을 확대하거나, 단순화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된다. 확대의 개념은 상을 본래의 크기보다 또는 기준이 되는 것의 크기보다 더 크게 하는 것으로 현실을 새롭게 환기시키는 재창조 방식으로 사용된다.

사물이 관찰을 통하여 확대됨으로써 그 과정에서 생성된 새로운 이미지를 추구하고, 관찰에 의한 사물형태의 사실적 효과를 노린 확대기법을 통해 대상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상징적인 의미로 작용한다. 형태가 확대될수록 본래 사물의 이미지는 해체되어 모호해지는데, 이처럼 사물의 형태를 해체시켜 사물의 겉모습을 떼어내고 그 해체 속에서 새로이 작가의 의도에 따른 모습으로 재구성 되는 것이다. 사물의 형태를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방법도 있지만 일부만을 확대하게 되면 전체적인 이미지에서 느낄 수 있는 것과는 다른 강한 내용을 제시할 수도 있다.

---

26) W. 칸딘스키, 「예술에 있어서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 열화당, p 82, 1996

본인의 작품에서도 대상을 확대시켜 화면 가득히 채우거나 꽃 형상의 특정 부위를 확대하여 단순화시킴으로써, 꽃이라는 대상으로부터 전해진 새로운 이미지를 표현하는 중요한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확대된 꽃은 실제보다 커지게 되면서 존재감이 강조되어 표현되는데, 단순화되고 확대되는 과정을 통해 본래 대상의 실재감에서 벗어나 다른 공간에 존재하는 낯선 대상으로 바뀌게 된다. 꽃의 형태를 보이는 그대로가 아니라 꽃의 형상을 확대하고, 색채를 통해 그 이미지를 부각시킴으로써 꽃의 생명력을 극대화시켜 표현 하였다. 이처럼 꽃의 확대를 통해 단순화 되고 절제화 된 이미지들은 보는 이들에게 시각적으로 더 집중하도록 유도하며, 많은 상상력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 3. 작가 분석

#### 1) 조지아 오키프 (Georgia O'keeffe)

본인에게 많은 영향을 준 미국 모더니즘의 대표적인 화가 조지아 오키프 (Georgia O'keeffe, 1887~1986)의 식물 모티브는 커다란 꽃송이로 가득 메우는 꽃의 확대 그림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다. 조지아 오키프는 정밀한 사실주의에 입각하여 객관적인 관찰로 정물과 꽃 풍경 등을 탁월한 색채감각으로 그려내 20세기 미국의 여성화가로 명성을 얻는다. 비구상과 풍경을 주로 그리던 오키프가 꽃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뉴욕의 교육대학에서 아더 W. 다우 (Arthur Wesley Dow)로부터 영향을 받으면서부터 이다.<sup>27)</sup> 다우는 그의 논문 「구성 (Composition), 1899」에서 “꽃을 그대로 묘사하는 것은 식물학자에게 맡길 일이며 선과 공간으로 된 불규칙한 패턴으로 표현하도록 하라.”하였는

27) Robyn Montana turner 「Georgia O'keeffe」, Little, Brown & Company, 1991, p 12~14

데,<sup>28)</sup>오키프는 이러한 추상성을 그대로 추구하려고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미술가가 독창성을 잃고 단순히 자연이나 타인의 제작을 모방할 때 미술은 타락한다. 이렇게 사실주의, 인습주의 그리고 예술계의 죽음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다.” 라는 다우의 교훈에 공감한 오키프는 전통적인 사실주의와는 다른 회화로의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을 처음으로 인식하고 자연의 외곽보다는 독립적인 선과 색이 자신의 시각 언어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처럼 오키프는 다우의 화면 구성 원리를 따라 대상을 자연 그대로 보지 않고 거의 추상적인 디자인에 가깝게 해석하였다.

오키프는 자신이 꽃을 크게 그리게 된 동기를 ‘바쁜 뉴욕 인들이 놀라서 쳐다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농담으로 설명하였지만 그녀의 확대기법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꾸준한 실험의 결과이다. 또한 관객과 정면으로 대치하여 속을 활짝 열어 보이고 있는 꽃들에서는 어김없이 강한 상징성을 읽을 수 있다.

그녀의 꽃 이미지에 대한 설명은 1926년 뉴욕 Intimate Gallery에서 열렸던 “Fifty Recent Paintings” 전시회 카달로그에 잘 나타나 있다. “누구나 꽃과 연관되어 행동하게 된다. 당신은 아마 꽃을 향해 손을 뻗치거나, 냄새를 맡으려고 앞으로 몸을 기울이거나, 살짝 입술을 가져다 대기도 하고, 연인을 기쁘게 하려고 꽃을 선물하기도 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정말 꽃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거의 시간을 내지 않는 것 같다. 나는 각각의 꽃이 내게 가지는 의미를 그리려 노력하였고, 다른 사람들이 내가 본 것을 잘 볼 수 있도록 가능하면 크게 그려 놓았다.”<sup>29)</sup>

자연의 내면이 존재하는 생명감을 리듬감과 조율하여 표현한 초기작품인 꽃

28) Ather W. Dow 「Composition: Understanding Line, Notan and Color」, Dover pub, 2007, p 20

29) Barbara Buhler Lynes 「Georgia O'keefee」 Vol.2, Natidnal Gallery of Art, Washington, 1999, p 109

이 본인의 작품과 연관성이 많아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그녀의 작품은 빨강, 주황, 노랑이 가지는 색채효과를 이용해 에너지로 충만한 화면을 확대표현 방법을 통해 꽃 속이 활짝 드러다 보이게 그린 붉은 칸나(도판 1)는 꽃의 형태를 부드럽게 강조하고 있으나 정제된 붓놀림으로 강렬한 에너지를 뽐어내고 있다.

꽃잎의 크기를 크게 혹은 작게 반복함으로 강한 색채와 확대된 구도로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또 크롭트 테크닉(cropped technique)기법으로 위에서 내려다 본 듯 깊숙하고 후미진 곳을 펼쳐 보인다. 꽃의 확대 혹은 각도와 미묘한 명암의 변화로 신비스럽고 무한한 공간의 느낌을 사실적인 표현법에서도 드러난다. 이것은 도브<sup>30)</sup>의 영향을 받아 자르기 가능성을 발견했고 모든 형태가 지극히 단순화 되었으나 자연의 힘과 리듬을 발산하고 있다. 정적이고 대칭적인 꽃을 통해 자연의 리듬과 생명력을 도브 이상으로 표현하였다.

파랑과 초록의 음악(도판 2)은 소리의 파도같이 물결치는 화법으로 위로 아래로 향하는 율동성으로 유기적 자연감을 표현한다. 오키프는 회화의 요소를 음악에 있어서 음과 같은 양상으로 사용하여 자연의 생명력과 신비함, 무한함을 추구하며 자연과의 융합을 꾀한다. 오키프의 회화의 특성 중 사진작가와의 가장 구별되는 창조성의 탁월함이 나타나는 부분은 색채이다. 빛들이 하늘과 만나 다양한 색채로 변이됨을 색을 이용해 시각적으로 추상시키는 것이다. 오키프에 있어서 색채는 정서 그 자체로 상징적이고 함축적인 의미로 선택되며 색을 통하여 시와 음악의 리듬을 캔버스에 옮겨놓았다. 계절에 시들어 버리는 연약한 꽃들은 작품에 사용하지 않고 영원히 살아 있는 꽃을 그리는 오키프는 생동감 있는 움직임만을 내면의 현란한 색채와 환상적인 공간을 이용하여 우

---

30) 도브(Arthur G. Dove, 1880~1946), 미국화가 미국추상미술의 선구자중 한사람

주의 에너지를 뺏어내면서 인간의 시선을 무시한 그녀만의 소세계를 만들어낸 다. 이렇듯 모더니즘을 추구하는 오키프의 작품은 자연과 예술이 하나 되는 곳으로서의 노력인 것이다.

오키프는 미국적 현상을 반영하는 하나의 이미지로 존재하고 있으며 고독한 자유, 강인한 개척정신 이라는 미국적 이상의 상징이다.

## 2) 마크 로스코 (Mark Rothko)

'나에게 색채는 비극, 환희, 과멸 등과 같은 근본적인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 이다. 내 작품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은 내가 그 작품을 그릴 때 느꼈던 종교적인 경험과 동일한 체험을 한 것이다.'

-마크 로스코-

마크 로스코는 본인에게 색채에 대해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 작가이다. 색면으로서 황홀하거나 공허함, 우울함 등의 인간 감정을 관람자들에게서 이끌어 낸다.

마크 로스코<sup>31)</sup>는 어린 시절 러시아에서 미국으로 이민하여 아버지를 잃고 미국사회에 동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많은 상실감과 소외감을 겪게 된다. 경제 대공황과 양차 대전과 같은 거대한 사건들을 경험하며 인간의 모든 이성을 초월하게 되는 시대의 아픔 속에 인간이 잃어버린 신의 모습을 찾고자 한다.

그가 선택한 방법은 형태가 아닌 색채였다. 인간이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그려내는 '형태'라는 것은 그가 몸담고 있는 지역의 문화와 사회적 성격 때문에 그 지역이 아닌 다른 문화, 다른 사회에서 공감을 얻기 어렵다. 그러므로 그는 형태가 사라진 추상 속에서 색채를 통해 모든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을 시

31) 마크 로스코 (Mark Rothko), 1903.9.25~1970.2.25 러시아 출신의 미국화가. 1913년 도미하여 예일대학, 아트 스튜던트 리그에서 배움. 쉬르레알리즘의 영향을 받은 후 추상 표현주의 작품에 도달.

도한다.

그는 일생동안 런던 테이트 갤러리에 그림을 걸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 결국 테이트 갤러리의 한 전시장에 상설 전시하는 조건으로 시그렘 빌딩 벽화용으로 그렸던 그림 9점을 기증하게 된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테이트 갤러리에 로스코 전시실이 만들어진 1970년 2월 25일, 그는 뉴욕의 작업실에서 자살하게 된다. 이후 사람들은 그의 작품을 ‘물리적 한계를 뛰어 넘은 색’, ‘초월적 세계의 색채’로 불렀고 그와 그의 작품을 기념하기 위해 텍사스 휴스턴에 그의 이름을 딴 예배당을 지어 종교적 상징물 대신 그의 그림을 걸어 놓았다.

마크 로스코의 비밀 - K에게

황동규

마크 로스코의 비밀 하나를  
오늘 거제 비치호텔 테라스에서 건졌다.  
지난밤 늦게까지 불 켜 있던 고깃배 두 척  
어디론가 가버리고  
이른 봄 밤 새기 전 어둡게 흔들리는 바다와  
빛 막 비집고 들어오는 하늘 사이에  
딱히 어떤 색깔이라 짚을 수 없는  
깊고 환하고 죽음 같고 영문 모를 환생같은  
저 금,  
지구가 자신의 첫 바다 첫 추억을 발라논,  
첫 추억을 반죽해 허허로이 두텁게 발라논  
저 금,  
점 차 가늘어져 그냥 수평선이 될 뻔한  
저 금

## 4. 본인의 작품 분석

본 연구자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꽃이라는 소재를 선택하여 확대와 생략, 강조의 방법으로 이미지를 재구성하여 캔버스 위에 유화 물감을 이용하여 강렬한 색채와 주관적인 형태를 통해 현대적 감각을 지닌 작품을 제작하려 노력하였다.

꽃의 일부분을 확대하여 본래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해체시킴으로써 다른 시각적 이미지로 보일 수 있도록 하며 생략을 통해 어떤 한 부분만을 강조함으로써 사실주의지만 지나치게 묘사하여 있는 그대로의 꽃의 형상으로 보여지는 것을 탈피하고자 하였다.

꽃이라는 주제로 그린 이번 연작은 꽃의 형태를 확대와 생략, 강조를 통해 이미지를 재구성하여 순수한 아름다움을 관찰하고 생명의 환희와 기쁨, 희망을 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하였다.

### 1) 확대된 꽃잎을 통한 조형적 이미지

[작품 1] Rose I , [ 작품 2] Rose II

만개한 꽃의 형상으로 표현하였고, 꽃잎을 단순화 하여 율동성 있는 곡선을 통해 리듬감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전면 회화(all over painting)로 캔버스 전체에 균일하게 표현하였다. 형태적으로 꽃의 전체적인 외형의 모양을 변형시켜 관람자로 하여금 다른 이미지로 보여 질 수 있는데 초점을 주었다.

본 연구자는 작품을 제작하면서 작품1)에서는 여자의 신체적 곡선을 떠올렸고 작품2)에서는 남성을 강인함을 느꼈다.

하지만 색채표현에서는 남성을 파랑에 가깝고 여성을 레드에 가깝게 생각하

는 것에서 탈피하여 작품1)에 blue 색상을 적용하고 작품2)에 red 색상을 적용함으로써 색채에서 느낄 수 있는 고정 관념을 벗어날 수 있도록 표현하고자 하였다.

## 2) 단순화된 조형적 꽃 이미지

[작품 3] Spring, [작품 4] Summer,  
[작품 5] Autumn, [작품 6] Winter

전면 회화로 (All over painting) 확대된 꽃에서 화면의 질서와 안정감을 형성하고, 꽃의 형태를 단순화하여 선과 면의 이중구조로써 표현하였다. 강한 색채를 통해 생명력을 표현하였고, 단순화한 형태에서는 조형성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대상의 실질적인 색을 표현하기 보다는 본인의 감성적인 색을 주로 이용하였다, 본인의 주관적인 감정 변화의 표현으로 강렬한 느낌의 색채를 사용하여 자칫 단조로워 질 수 있는 화면구성을 역동적이고 활기찬 느낌과 에너지를 표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4가지 색채를 이용하여 4계절 내도록 우리 곁에서 볼 수 있는 꽃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 연작 시리즈는 작품 하나 있을 때 보다는 4개의 작품의 색상들이 조화를 이룰 때 그 에너지는 배가된다.

### [작품 3] Spring

봄날처럼 봄의 색채는 밝은 노랑 (Yellow undertones)이 지배하는 맑고 밝은 색채이다. 나무의 햇순들은 아직 다 자라지 않아 노란빛 새순 같은 색채이다. 봄의 색채는 멀리 보이는 사방의 노란 빛으로 만물을 활기차고 적극적

인 모습으로 변화 시킨다. 이 계절의 색채는 봄의 새싹 같은 색채와 주홍, 청자빛 튜립과 밝은 노랑의 수선화의 꽃다발과 같은 색채이다. 만물의 생성 기운을 상기 시키기 위해 맑은 노랑 색깔 위주로 **all over painting** 한후 그 위에 약간의 명암법을 이용하여 화면 분활을 하였다.

#### [작품 4] Summer

여름철 계절색은 파랑이 지배하는 (**Blue undertones**) 색채이며, 푸른 바다, 청명한 하늘을 볼 수 있는 계절이다. 물거품 같이 흐린 파랑의 점판암 슬레이트 지붕색과 같은 회청색이 여름의 특성을 잘 보이는 색채이다. 여름의 무더위를 잊기 위해 좀 더 차가움에 가까운 파랑색을 유지하려 했으며 그 차가움 속에서 내가 평소 느껴왔던 여름의 청명하게 표현 하려하였다.

#### [작품 5] Autumn

단풍이 곱게 물들어 가는 가을의 숲은 부유하고 향토적인 색채이다. 주황색이 지배하는 (**Orange under tone**) 색채이다. 이 자연스러운 가을을 연상케 하는 색채는 따뜻하고 보호하는 느낌으로 항상 인기 있는 색채이다. 단풍을 물들게 하는 식물의 화청소 안토시아닌의 생성은 빛과 낮은 온도가 작용한다. 날씨가 추워지면 나무는 광합성을 하지 못하고 클로로필이 벗겨지면서 나뭇잎에 있던 여러 가지 색소들이 주황 (**Orange**), 노랑 (**Yellow**), 빨강 (**Red, Carotenoids, Xanthophylls ,and Anthocyanins, Respectively**) 등 다양한 색소가 나타나면서 화려한 색채가 나타나는 것이다. 작품에서는 빨강(**Red**) 색상을 이용하여 자연 만물의 결실을 이루는 가을의 느낌을 강렬하고 풍성하게 이끌

어 내고자 하였다.

### [작품 6] Winner

어둡고 추운 겨울 날씨와는 다르게 겨울의 색채는 깨끗하고 차가운 파랑이 지배하는 (Blue undertones) 색채이다. Cherry red, Emerald green, Royal blue, Magenta, Violet이다.

작품에서는 여름의 이미지와 겹침을 피하기 위해 tone-down 된 Violet 색상을 이용하여 겨울의 적막함과 고요함, 텅 비워 있는 듯 하지만 생각해보면 가장 많은 것을 지니고 있는 겨울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 3) 꽃 수술을 통해 생명력이 강조된 이미지표현

[작품 7] Wild Flower I, [작품 8] Wild Flower II,

[작품 9] Wild Flower III, [작품 10] Wild Flower IV

꽃은 그 자체만으로도 사람들에게 시각적, 후각적으로 느끼고, 감상하기에 충분하지만, 직관과 상상력을 통하여 자연의 기운과 본인의 심상을 강조하여 형상으로 표현하였고 시각적인면의 조형성을 추구하였다.

꽃의 생명력은 가장 힘차고 역동적이며 강한 색, 강렬한 이미지로 사람들의 감각과 열정을 자극하여 자기 확신과 자신감을 보다 강하게 전달하고자 한다. 꽃 수술의 응집되어 있는 생명력을 표현함에 있어서 동적인 느낌과 강한 생명력을 표현하였다. 움직이는 모양과 방향에 따라서 동적인 느낌을 최대화하였다. 단순화된 꽃잎의 평면적인 색채 표현과 빈 여백은 비어 있는 공간이 아니라 정신세계를 반영함과 동시에 무한한 가능성을 내포하여 표현하였다.

### [작품 7] Wild Flower I

여행 중 고여 있는 물가에서 발견한 이미지를 캔버스에 옮긴 작품이다.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속에서 홀로 피워져 있던 꽃 한송이에서 강인함을 느낄 수 있었고 이러한 강인함을 꽃이 가지고 있는 섬세함과 부드러움 보다는 스스로를 지켜 내기 위한 방어책인 마냥 수술의 느낌을 자연물이 아닌 인공물, 마치 기계와 같은 느낌에 가깝도록 표현 하였다. 이 작품을 시작으로 화면을 가득 채우는 답답함을 탈피해 보고자 조금씩의 여백을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 [작품 8] Wild Flower II

여백의 활용에 있어서 이미지가 존재하지 않는 부분을 여백으로 남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 자체에서 여백을 찾아 가 봄으로써 이전의 작품과는 다른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작품 속에 하늘과 땅이 같이 공존하고 있으며 아주 작은 자연의 일부인 꽃 한 송이 이지만 그 안엔 드넓은 하늘을 품을 수 있는 여유로움을 지니고 있는, 작지만 그 내면은 커다란 존재성을 가지고 있음을 표현하였다.

### [작품 9] Wild Flower III

꽃의 구성 요소 중 가장 중요한 요소가 꽃술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꽃술을 사람의 신체 부위와 연관성을 염두해 두고 시작한 그림이다.

작품에서 나타나고 있는 꽃술의 형상은 마치 사람의 혀와 비슷한 모양새를 지니고 있다.

혀는 간접적으로는 우리의 발성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소리는 사람들을 아름답게도 추하게도 만드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균중들의 소리가 모여 하나의 존재를 영웅으로도 만들 수 있으며 반대로 우리의 곁에서 내몰기도 한다. 이러한 말의 중요성을 꽃술에 빗대어 표현해 본 작품이다.

#### [작품 10] Wild Flower IV

우리의 생활 속에는 항상 양면성이 존재한다.  
어둠이 있으면 밝음이 있고 생이 있으면 사가 있듯이 모든 것에는 그 반대되는 속성이 함께 늘 공존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는 암술의 밝은 이미지 보다는 그 그림자가 더 시각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작품에서 말하고 싶은 주된 요점은 우리의 인생사의 어두운 부분 보다는 밝은 부분을 먼저 발견하고 밝음이 있으면 어둠 또한 그 곁에 항상 존재하고 있음을 생각하며 인생을 지혜롭고 현명하게 풀어 나가하고자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 작 품



[ 작품 1 ] Rose I , 162.2x112.1cm, oil on canvas, 2009



[ 작품 2 ] RoseⅡ, 162.2x112.1cm, oil on canvas,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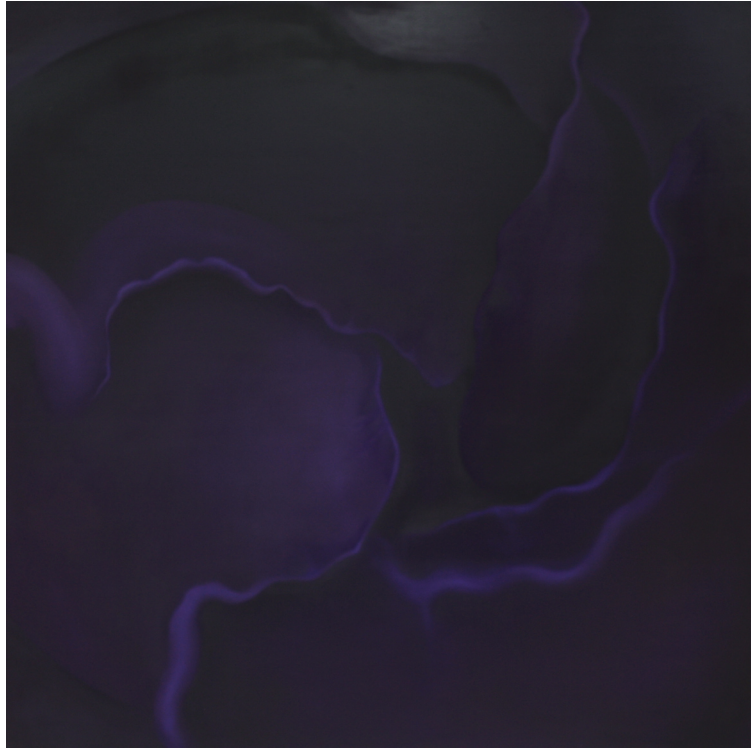
[ 작품 3 ] Spring, 150x150cm, oil on canvas, 2009



[ 작품 4 ] Summer, 150x150cm, oil on canvas, 2009



[ 작품 5 ] Autumn, 150x150cm, oil on canvas, 2009



[ 작품 6 ] Winter, 150x150cm, oil on canvas, 2009



[ 작품 7 ] Wild Flower I , 116.8x80.3cm, oil on canvas, 2010



[ 작품8 ] Wild FlowerⅡ, 116.8x80.3cm, oil on canvas, 2010



[ 작품9 ] Wild Flower Ⅲ, 116.8x80.3cm, oil on canvas, 2010



[ 작품1 0 ] Wild Flower IV, 116.8x80.3cm, oil on canvas, 2010

### Ⅲ. 결 론

자연에서 작품의 근원을 찾아서 대상을 선택하고 창작의 과정에서 합일과 조화를 통해 생명력 있는 작품을 탐구하고 창작하는 것은 예술가에게 있어서 어쩌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다.

예술은 개인의 삶과 사회를 반영하고, 새로움을 향한 예술가의 창조정신의 결과물이며, 작가의 주관적 세계가 표현된 것이다. 본인은 자연의 일부인 꽃을 통해 생성, 소멸, 순환의 과정을 거치며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하면서도 그 본성은 불변하고 원초적 생명력을 간직한 꽃을 색면을 이용하여 생명이미지로서 조형화한 작품을 완성하게 되었다.

꽃의 이미지를 화면에 표현할 때 자연 대상에 대해 스스로 받는 느낌이나 감동이 없이는 결코 표현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꽃의 이미지 표현에 있어서 꽃의 형상을 확대, 강조, 생략을 통해 본인의 감성으로 지각된 색채로 절제된 이미지를 표현 한 꽃은 현실의 꽃이 아닌 생명의 의미로서의 결정체이기도 하다. 본인의 작품 속에 그려지는 꽃은 상징성과 서정적 감성이 내재하고 있는 표현의 이미지로 존재하며 감정이입을 통해 다양한 심리적 상태를 수반하여 정신세계의 사의적 만남으로 조화를 이루며 대상을 시각화하여 그 근원에 대한 통찰을 통해 인간의 삶과 자연과의 관계 및 조화를 이루게 하였다. 따라서 꽃이라는 소재를 놓고 외적 형상만을 그리는 복제의 대상이 아닌 감정을 통해 내적 감성과 외적 형상을 혼합, 일치시켜 심상적 생동감과 독자적인 조형방법으로 그려야 하는 것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다. 본인에게 있어 꽃은 생명의 다른 이름이며 색채를 대변 해주는 중요한 이미지이자 우리의 삶을 반영해 주는

매개체인 것이다. 생명의 연결고리로 삼은 꽃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현실에 존재하는 꽃을 색면에 가두면서 시들지 않는 영원함과 꽃이 아닌 다른 이미지로 재탄생 시켜 새로운 생명력을 부여 시켰다.

조지아 오키프의 그녀만의 뛰어난 조형 능력과 마크 로스코의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색채 표현을 연구, 분석 해봄으로서, 앞으로의 본인 작업에 있어서 부족한게 무엇이고 이를 채우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낀다.

생명력을 지닌 자연물로서 인위적인 힘에 의해 형성되지 않는, 연약하지만 싹으로부터 시작하여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식물의 삶 속에서 가장 본능적 충동을 강하게 느낄 수 있는 꽃을 대상으로 한 이번 연구를 통해, 확고한 내면세계의 객관화와 더불어 사물이 갖는 본인만의 더욱 성숙된 표현과 좀 더 나은 감동을 표출 할 수 있는 독창적인 표현 방식에 더 많은 노력과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예술의 목적은 논리적으로 진리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과 가슴으로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 한다. 본인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예술의 다양함 속에서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자아발전을 위해 더욱 정진하고자 한다. 앞으로의 작업을 위해 보다 폭넓고 다양한 경험의 축적으로 독창적인 이미지를 창조해야 하는 것을 인식하고, 창작 활동에 있어서 다양한 실험 정신과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새로운 표현방법과 재료를 탐구하여 끊임없이 개발하여 독창적인 작품 활동을 넓혀 나가하고자 한다.

## 참 고 도 판

### 1. 조지아 오키프

[ 도판 1 ]



Red Canna, oil on canvas, 91.4 X 76.0cm 1923

[ 도판 2 ]



Blue and Green Music, oil on canvas  
58.4 X 48.3 cm 1919

[ 도판 3 ]



Gray Line With Black, Blue and Yellow ,  
oil on canvas, 122 X 76.2cm, 1923

[ 도판 4 ]



Black Iris III, oil on canvas, 1926

[ 도판 5 ]



Oriental Poppies 1928 oil on canvas 76.2 X 101.9 cm

[도판 6 ]



Abstraction White Rose II, oil on canvas, 1927

[ 도판 7 ]



Purple Petunias, oil on canvas, 1925

## 2. 마크 로스코

[ 도판 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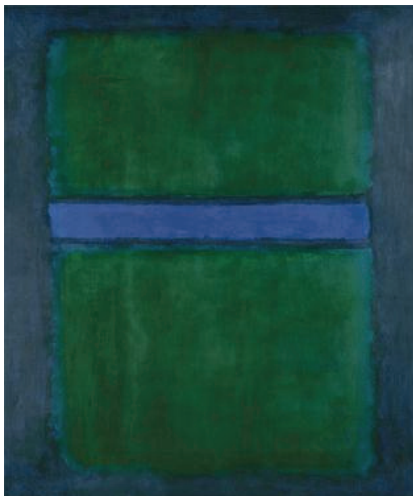
Orange & Yellow, oil on canvas, 1956

[ 도판 9 ]



Untitled, acrylic on canvas, 152.4x145.1cm, 19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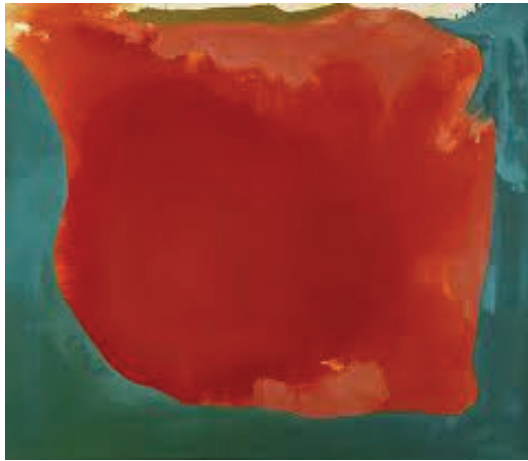
[ 도판 10 ]



Untitled, oil on canvas, 247.3x207.8cm 1957



[도판 11] <누가 빨강,노랑,파랑을 두려워 하랴?> 바넷 뉴만 1969~1970>



[도판12]canyon, Acrylic on canvas,112x132cm,  
(Helen Frankenthaler)



[도판 13] Morris Louis , 델타 감마, 1960

## 참 고 문 헌

- 강혜순. (2002). 꽃의 제국. 서울 : 다른 세상.
- 김미희. (2004). 꽃을 통한 감성적 이미지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 대학교 디자인 대학원 .
- 김순애, 민희자, 이영혜, 윤경숙, 정의진, 조명숙. (2010) 꽃으로 색채를 말한다. 서울 : 도서출판 SAY
- 박기운. (2006). 현대 미술 이론. 서울 : 형설 출판사.
- 박옥련. (1998). 색채이론과 활용. 서울 : 형설 출판사.
- 오연수. (2004). 색채의 유혹. 서울 : 살림 출판사.
- 윤소정. (2009). 꽃의 형태와 구조를 통한 표현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 윤일주. (1974). 색채학 입문. 서울 : 민음사.
- 이경영. (2002). 공예통론. 서울 : 다른 세상.
- 임영방. (1982). 현대미술의 이해. 서울 : 서울대 출판부.
- Ather W. Dow. (2007) Composition : Understanding Line, Notan and Color. Dover pub.
- Britta Benke. (2006). 조지아 오키프. ( 강병직 역 ). 서울 : 마로니에박스.
- Faber Birren. (1996). 색채의 영향. ( 김진한 역 ) 서울 : 시공사.
- Guila Ballas. (2002). 현대미술과 색채. ( 한택수 역 ) 서울 : 궁리
- Jacob Baal-Teshuva. (2006). 마크 로스코. ( 윤채영 역 ). 서울 : 마로니에박스.

Johannes Itten. (1976). 색채의 예술. ( 김수석 역 ) 서울 : 지구문화사.

R.G Collingwood. (1978). 예술철학개론. ( 이일철 역 ) 서울 : 정음사.

Sharman Apt Russell. (2003). 꽃의 제국. ( 석기용 역 ) 서울 : 이제이북스

# ABSTRACT

## A Study on Life Image by Color Extension

- based on my own works -

Choi, Ja-Yun

Department of Occidental Painting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duct research on the image of "flower", a key meaning of life expressed in my works from 2009 to 2010 based on formative images in the flowers. The flower, a subject matter, is another name of life, an image on behalf of life, and part of our life existing in colors. As "Poverty in the Midst of Plenty" meant, it was the most difficult to find good subject matters all the time. It didn't make sense for me to paint only the subject matters I liked, and I thought it was difficult to choose a good subject matter. One day I saw a wild flower during my trip, which became an important subject matter in my works. The flower in my works made me realize that the trivial things around us could be the best subject matters in arts.

In the history of arts, many artists created great works by passionate experiments and contemplating how to express beautiful colors. Flowers have a variety of colors unable to be expressed with

our paints, and even only one flower has more colors than we think. As a flower is closely associated with colors, it is considered to be a proper subject matter for this study.

Nature always changes, and it contains the order of creation like formation and extinction. In particular, the flower has the meaning of both sides clearly, and it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when feeling is expressed and family events are informed for a long time. In such a mysterious order having both sides, artists have tried to trap the flower, which could fade in a moment, in their works to be with it for longer time.

This study is not for simply painting the shape of flower as an aesthetic object. The main purpose is to classify the image by emphasizing, omitting, and magnifying certain parts of flowers so as to find the inside hidden, efficiently express the inside sensibility using colors, and then enable the flower to be accepted with different images from the one of real flowers based on occupation groups, the inside, and personality of spectators. In addition, the curve, an external characteristic of flowers, adds to musical factors like rhythm through movement, expansion, contraction, and repeated process of the shape. The main work is to use colored planes and blank space regardless of shading based on "All Over Painting" technique filling picture with colors sensibly recognized by researcher, rather than sticking to the original colors of the objects visually recognized through lights. The object was closely photographed, the image

necessary for researcher was reproduced by cropping technique, and then it was expressed on canvas with oil paints.

I tried to understand the structure using flowers and find new images unknown to people. Based on the result, I tried to visualize the vitality of Nature unseen through the shape of flower and express the unconscious imagination reflected on the image of Nature.

In chapter 1 of this study, the relationship between arts and Nature which is the basis of my works will be reviewed, and the meanings and the symbols perceived by people will be studied based on theory. After that, All Over Painting and Cropping technique used in works will be described. In chapter 2, colors and shapes, which are formative language visually necessary in my works through enlargement, emphasis, and omitted images in the process of expressing the image of flowers perceived by my own sensibility, will be studied, and then art "**Cisu**" and artists related to colored plane will be understood. Finally, the analyzing artists influencing on my works in chapter 3 is expected to be useful to solve any problems in my works and to determine where to go in my future works.

This study helped me to take more new and progressive targets in future, and I will make efforts to expand my works into more matured and advanced art area.